



미세먼지의 습격... 희뿌연 제주 시가지 추위가 물러가니 미세먼지가 기승이다. 18일 제주시 미세먼지농도가 짙어져 나뭇상태인 가운데 도두봉에서 바라 본 제주시내가 미세먼지로 뿌옇게 둘러 쌓여 있다.

## ‘재난기본소득’ 현실화 급물살

제주도 “내부 검토 진행... 일괄 지급은 힘들어”  
소득 끊긴 자영업자·노동자 등 대상 가능성 커  
도의회, 선제적 검토 주문... 예산 확보는 속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전국적으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 도정도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어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보편적 일괄 지급이 아닌 무급 휴직자, 소득 끊긴 자영업자 등 선별적인 지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8일 제주도청 기자회견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재난기본소득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한정된 재원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상에게 가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공무원 등 급여가 잘 지급되는 대상에도 재난기본소득이 지원되면 소득이 끊긴 자영업자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 프리랜서 등에게는 충분히 지원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자영업자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제 이날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김항국 의원(미래통합당, 용담1·2동)의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논의된다면 그 수요는 어디서 찾을거냐. 빚을 질거냐, 자체 가용재원을 할거냐”는 질문에 “가용재원은 한정된 예산이라 어렵다. 꼭 지급해야 한다면 부채를 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는 채무 증가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도의 ‘2020년 지방재정 실행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2520억원에 이어 2021~24년까지 매년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앞서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제주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소고’ 주제 정책차원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지급하고, 전체 제주도민 중 소득분위 1~4분위(월소득 22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을 수혜대상으로 해 일종의 ‘재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제주 전체 가구수 약 23만(2017년 기준) 가운데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약 9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450억원으로 추산했다.

오은지·송은범기자

##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위기 극복을 문 대통령, 주요 경제주체 원탁회의서 당부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18일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보건 위기와 경제 위기가 한꺼번에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들이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위기 극복의 주역이 되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경영계와 노동계, 중소·중견기업, 벤처·소상공인, 수출·서비스업, 금융계와 소비자단체 등 주요 경제주체들과 함께 한 원탁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아주 엄중한 상황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보건 위기와 경제 위기가 한꺼번에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전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라 경제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과거 경제 위기 사례와 양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전례 없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추경을 포함해 총 32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지원을 실행할 것”이라며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는 물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 영세 사업장에 대한 임금



보조, 저소득층 소비 여력 확충과 고용 유지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대책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방역이 최선의 경제 대책’이라는 생각으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경제를 지켜나가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의 힘만으론 부족하다.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들께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위기 극복의 주역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 도내 정치권 총선 필승카드 ‘만지작’

더불어민주당 매머드급 선대위로 기선 제압 나서  
미래통합당 조만간 선대위 발대·조직 강화 ‘시동’

4·15총선을 향한 도내 정치권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압승을 희망하고 있고, 현재 11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미래통합당도 총선 과반 승리를 내세우고 있다. 여야는 향후 국정 운영의 주도권이 달려 있는 만큼 여야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제주도당은 18일 장성철(제주시갑)·부상일(제주시을) 총선 예비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열어 필승을 결의하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했다. 제주도당은 19~20일 중앙당 선대

위 출범에 따라 오는 24일을 전후해 제주총괄 선대위를 출범하기로 했다.

중앙당 선대위는 현 정부의 ‘경제 실정론’을 총선 이슈로 삼아 여당과 본격적인 경쟁을 벌이기로 결정했으며, 선대위 아래 안보·경제·여성·4차 산업혁명 등을 총괄하는 분야별 조직을 틀 계획이다.

제주도당 관계자는 “내일이나 모레쯤 출범하는 중앙당 선대위 일정에 맞춰 24일 전후 제주 선대위를 출범할 예정”이라며 “이달 출범을 앞두고 중랑급 있는 외부 인사영입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8일 도당 당사에서 제주에서

는 처음으로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 시켰다.

민주당 선대위는 강창일 총괄선대위원장을 필두로 송재호(제주시갑)·오영훈(제주시을)·위성곤(서귀포) 예비후보와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 등 4명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고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 좌남수·이상봉·이승아 도의원 등과 도내 직능단체 대표 등 100명이 넘는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도내 3개 선거구 재석권을 추진하고 있다.

정의당 고병수 예비후보와 제주시갑 무소속 박희수 예비후보 및 군소 정당 후보들도 조만간 선대위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고대로그자 bigroad@ihalla.com

## 오늘 제주 전역에 ‘태풍급’ 강풍특보

제주 전역에 태풍급 강풍이 불 것으로 전망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8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9일 새벽부터 20일 아침까지 북한을 지나는 차가운 저기압과 우리나라 남동쪽의 따뜻한 고기압 사이에서 기압

차가 커지면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 특히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바람이 초속 10~16m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제주도 전역에 강풍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제주도 전 해상에서도 바람

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물결도 2~4m로 매우 높게 일어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선별진료소와 같은 야외에 설치된 천막이나 간판, 건축공사장, 철물 등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현석기자

한라일보 창간 31주년을 축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 제주·교육 **뛰놀담**

새로운 100년의 2020 제주교육

“시작”

코로나-19 함께 이겨내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YouTube 제주도교육청